

2023.09 Aalto EMBA

An Analysis of the Financial Implications of Hiring Differently Abled Persons (DAPs) in Companies

Lee, Chong Min

November 2024

장애인 채용결과가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종 민

November 2024

Executive Summary (Englis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mpact of hiring Different Abled Persons (DAP), also known a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The research aims to shift the perspective from viewing these individuals as disabled to recognizing them as people with different abilitie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research were twofold: first, to identify differences in financial performance between companies with high and low employment rates of DAP; and seco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iring DAP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These objectives were set against the backdrop of increasing global emphasi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growing recognition of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DAP to the workforce. The study seek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or challenge existing perceptions about the financial implications of hiring DAP.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designed to ensure a comprehensive and robust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AP employment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A sample group of 51 companies was selected from the list of firms that failed to meet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DAP, a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ontrol groups were established from similarly sized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and the Korean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KOSDAQ) market. These control groups allowed for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mpanies with varying levels of DAP employment.

The study yielded several significant findings that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AP employment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Companies with higher employment rates of DA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Notably, positive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Net Profit Margin and Total Asset Turnover. This suggests that employing DAP may contribute positively to a company's profitability and efficiency in asset utilization.

No clear difference was found in the employment rate of DAP between listed and unlisted companies. This finding is particularly interesting as it suggests that a company's listing status may not directly influence its propensity to hire DAP. It challenges the assumption that publicly listed companies, which are often under greater scrutiny for their social responsibility practices, would necessarily have higher DAP employment rate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otal Asset Turnover and the employment rate of DAP. This relationship was further supported by regression analysis, which indicated that Total Asset Turnove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mployment rate of DAP. This finding suggests that companies that are more efficient in using their assets to generate revenue may be more likely to employ DAP, or conversely, that employing DAP may contribute to improved asset utilization effici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They challenge the misconception that hiring individuals with different abilities might be a financial burden to companies. Instead, the study suggests that employing DAP does not negatively affect a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and may even have positive effects in some aspect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AP employment and certain 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provides a business case for inclusive hiring practices. This could encourage companies to view DAP employment not just as a social responsibility but as a potential contributor to financial performance. Furthermore, these findings can inform government policies aimed at promoting DAP employment. By demonstrating the potential financial benefits, policymakers can create more effective incentives for companies to increase their DAP employment rates.

However, the study also has several limitation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future research. These include data constraints,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causal relationships, and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Future research should aim to access more comprehensive and detailed data sets, conduct longitudinal studie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causality between DAP employment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consider industry-specific analyses to provide more nuanced insights. Additionally, future studies should incorporate qualitative factors such as company culture, employee satisfaction, and customer perceptions to provide a more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DAP employ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financial viability and potential benefits of employing DAP. It contributes to a growing body of research that emphasizes the value of diversity and inclusion in the workplace.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perceptions of hiring DAP, emphasizing their unique abilities rather than limitations, and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government policies for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fferent abilities. As businesses continue to evolve in an increasingly diverse world, recognizing and leveraging the talents of DAP may become not just a social imperative but a key factor in driving corporate success.

Executive Summary (Korean)

본 연구는 장애인을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Different Abled Persons, DAP)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DAP 채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는 이들을 장애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한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DAP 고용률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간의 재무성과 차이를 파악하고, DAP 채용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론은 DAP 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 설계되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DAP 의무고용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목록에서 51개 기업의 표본 그룹을 선정하였고,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와 한국거래소(KOSDAQ) 시장에 상장된 유사한 규모의 기업들로 대조군을 설정하였다.

기업의 재무성과는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비교 통계 테스트 등 다양한 통계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DAP 고용률이 높은 기업은 일부 재무성과 지표, 특히 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에서 긍정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DAP 고용이 기업의 수익성과 자산 활용 효율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DAP 고용률에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기업의 상장 여부가 DAP 고용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총자산회전율과 DAP 고용률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DAP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거나, 반대로 DAP 고용이 자산 활용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먼저, 다른 능력을 가진 개인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오해에 도전한다. 오히려 본 연구는 DAP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DAP 고용과 특정 재무성과 지표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포용적 고용 관행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이 DAP 고용을 단순히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먼저, DAP 고용 및 기업 재무에 관한 데이터의 가용성과 범위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주로 상관관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인과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별 특성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더 세분화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별 분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주로 정량적 재무 지표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 문화, 직원 만족도, 고객 인식 등 질적 요인을 포함하여 DAP 고용의 영향에 대한 더 전체적인 이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DAP 고용에 관한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DAP 고용의 재정적 실행 가능성과 잠재적 이점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이는 직장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연구의 증가하는 흐름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DAP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한계보다는 독특한 능력을 강조하며,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부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세계에서 계속 발전함에 따라, DAP의 재능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의무가 아닌 기업 성공을 이끄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II. 이론적 배경	4
1. 국내 장애인 채용현황	4
2. 국내외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	8
3. 선행연구 고찰	9
4. 연구가설	11
III. 연구방법	13
1. 연구대상 및 절차	13
2. 측정도구	13
3. 분석방법	14
IV. 연구결과	15
1. 결과 제시	15
1)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대상기업 표본집단 분석	15
(1) 기술통계	15
(2) t검증	16
(3)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17
(4)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19
(5)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20
2)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기업 대조군 분석	21
(1) 기술통계	21
(2) t검증	22
(3)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25
3) 코스닥상장 매출액 상위 50개 기업군 분석	26
(1) 기술통계	26
(2) t검증	26
(3)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30
(4)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31
2. 설정된 가설의 검증	32
V. 논의 및 결론	34
1. 논의 및 결론	34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34

표목차

<표 1> 장애인 분류-----	4
<표 2> 장애인 취업자의 일자리 산업별 비교-----	8
<표 3> 고용의무제도 국가별 비교-----	8
<표 4> 재무성과 변수 정의-----	13
<표 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표-----	14
<표 6> 표본집단의 기업형태 분류표-----	15
<표 7> 독립표본 t검증 결과표-----	16
<표 8> 일원분산분석 결과표-----	17
<표 9> 상관분석 결과표-----	19
<표 10> 회귀분석 결과표-----	19
<표 1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표-----	20
<표 12-16> 단일표본 t검증 분석 결과표-----	21
<표 17> 독립표본 t검증 결과표-----	23
<표 18> 상관분석 결과표-----	24
<표 19>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표-----	25
<표 20-24> 단일표본 t검증 분석 결과표-----	26
<표 25> 독립표본 t검증 결과표-----	28
<표 26> 일원분산분석 결과표-----	29
<표 27> 상관분석 결과표-----	31

그림목차

<그림 1>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연도별 비율.....	5
<그림 2> 장애인인구 연령별 비율.....	6
<그림 3> 장애인인구 및 전체인구 경제활동상태 구성.....	6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 기업 경영에서 조직의 다양성은 혁신과 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나라지표 발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내 민간부분 장애인고용율이 2013년 2.41%에서 2023년 3.0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최소요건이라 할 수 있는 법정 의무고용률 3.1%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는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 추가적인 시설 투자 및 관리 비용 증가 예상, 비장애인 직원들과의 조직문화 통합 문제, 적합한 직무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들은 대부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외 연구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직무 충실도와 낮은 이직률을 보고하고 있어, 장애인 채용이 기업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는 장애인 직원들의 남다른 성실성과 극복 의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이들은 신체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비장애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연구자 자신을 포함한 비장애인 직원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으며, 직장 내 전반적인 근무 태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은 장애인 채용이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넘어, 조직 문화의 긍정적 변화와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장애인 채용은 기업의 법적분담금 경감시키는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외에도, 다양성 증진을 통한 기업혁신 도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및 이미지 개선, 충성도 높은 인재 확보,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및 혜택 활용 등 여러 가지 직간접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다양한 이점들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애인 채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장애인 채용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 채용이 기업에 부담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 수립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장애인 채용은 ESG의 '사회(Social)' 부문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로, 장애인 채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ESG 경영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장애인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다른 능력을 보유한 사람(Different Abled Persons, DAP)'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다양성의 관점에서 장애인 채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장애인의 잠재력과 가치에 주목하고, 기업 내 다양성 증진의 핵심 요소로서 장애인 채용을 인식하며, 장애인 채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채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장애인 채용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입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장애인 채용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연구자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이 연구는 장애인 채용이 가져올 수 있는 조직 문화의 긍정적 변화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목적

본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연구는 장애인 채용이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통계학적인 수치를 통해 정량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장애인 채용이 기업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앞서, 장애인 채용의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국내 장애인 채용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채용 촉진을 위한 국내외 정부정책들을 확인해 봄으로써 국내 기업의 장애인 채용의 현 주소를 인지하고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노력의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해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장애인 채용증가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다양성이 향상되어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상승 될 경우 기업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정량적 측면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재무성과 분석결과는 정부주도하의 장애인 채용이 아닌 민간기업 부분에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향후 기업채용담당 및 경영진의 장애인채용 정책방향 수립에 중요한 객관적 근거자료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관련 경영실천이 갈수록 강조되는 기업의 비즈니스환경속에서 ‘사회 (Social)’ 영역에 해당되는 장애인 고용이 조직문화의 다양성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재무적 상관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기업들의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끝으로, 장애인 채용과 관련된 기업 정보 공개의 제약성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관련 정책 및 법규 개정을 통해 장애인 채용 관련 기업 정보 공개가 확대될 경우, 이는 장애인 채용이 기업 가치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장애인 채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내 장애인 채용현황

장애인에 대한 국가별 통계정보, 대상자의 범위, 통계 발표 주기 등 서로 상이한 점이 많기에 일괄적이고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울 뿐더러 본 연구의 중점사항이 국내 장애인 채용현황을 통한 기업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접근 법이기에 국내 장애인 통계수치 및 채용현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국내 장애인 분류 및 인구통계학적 현황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15가지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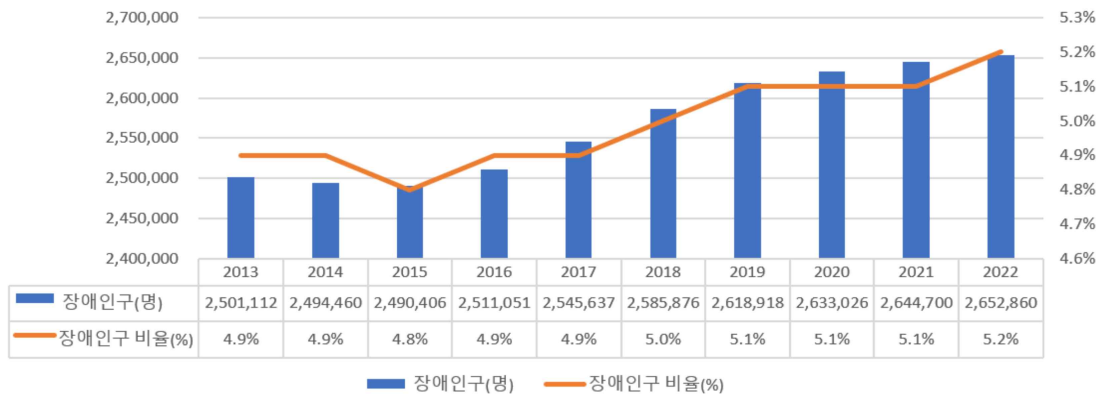
<표 1> 장애인의 분류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2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3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4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5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6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7		내부기관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장애
8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9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10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11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12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13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4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15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

		애	복성우울장애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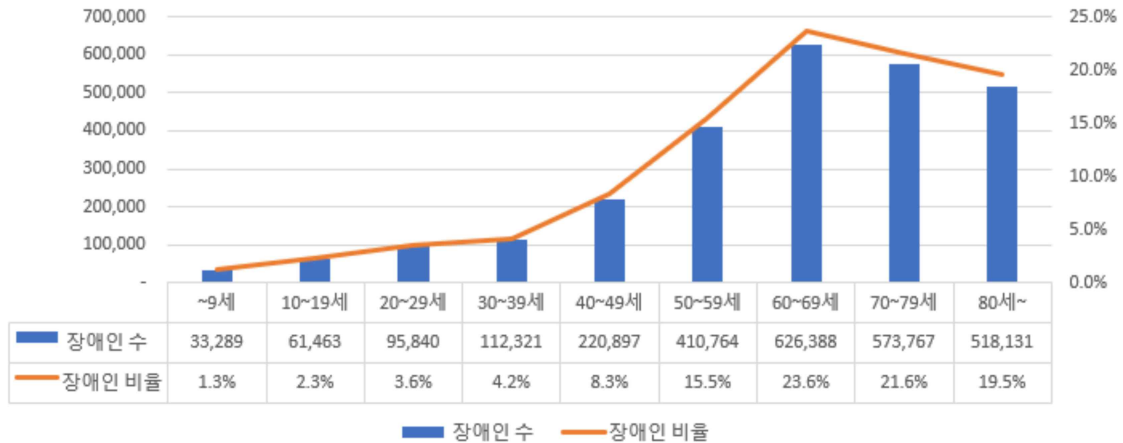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발표 “2023 장애인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1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501,112명에서 2,652,860명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 총인구 (2022년 12월 기준 51,439,038명) 대비 장애인 인구 비율 또한 4.9%에서 5.2%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연도별 비율 (각 연도의 1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등록장애인 수에 대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60대 23.6%, 70대 21.6%, 80대 이상 19.5%순으로 나타나며 대한민국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의 고령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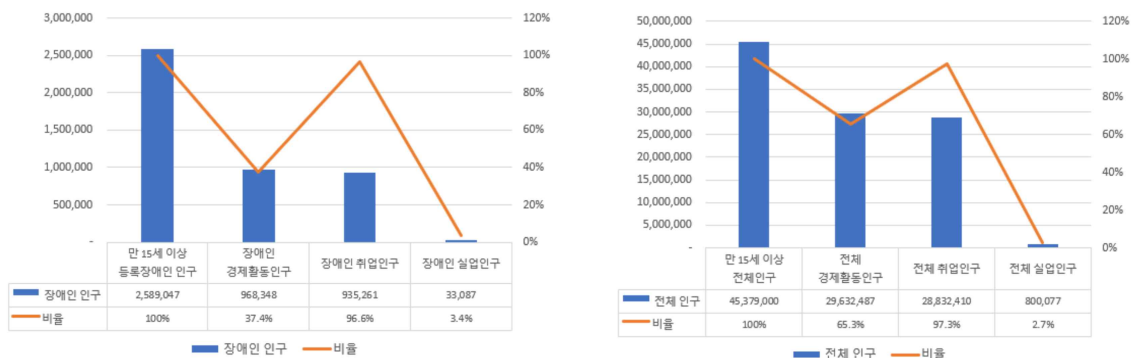
<그림 2> 장애인인구 연령별 비율 (2022년 1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2) 국내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발표 2023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기준 장애인 경제활동인구¹는 968,348명으로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가 대비 장애인 경제활동비율은 37.4%로, 만 15세이상 전체인가 수 대비 전체 경제활동인구비율인 65.3% (29,632,487명) 보다 현격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만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대비 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96.6%, 3.4%로 만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 인구 대비 전체인구의 고용률 (97.3%) 및 실업률 (2.7%) 수치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면 장애인 고용률²은 36.1%로 나타나 같은 기준 전체 고용률 63.5%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장애인인구 및 전체인구 경제활동상태 구성 (15세이상 인구, 2023년 5월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¹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²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장애인 취업자에 대한 일자리별 비교분석을 해보면, 장애인 취업 비율이 높은 상위일 자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5%), 제조업 (13.4%), 농업/임업/어업 및 광업 (11.7%), 도매 및 소매업 (9.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1%),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7.2%), 건설업 (7.0%)으로 나타난다. 반면, 직장별 장애인 취업 비중이 낮은 일자리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공 조절 공급업 (0.2%),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0.3%), 정보통신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 (31.5%), 금융 및 보험업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 교육 서비스업 (2.7%)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채용이 육체적인 단순 업무를 요구하는 업종에 편중이 되어 있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고 소득 직종에서의 채용비용은 현격히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체인구대비 장애인 채용비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장애인 채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농업/임업/어업/광업 (+ 5.9%),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 5.4%), 교육서비스업 (+ 3.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 2.2%),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0) 분야에서는 더 높은 취업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업종에서의 수치는 장애인 채용으로 인해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제 및 보조금 혜택 등을 고려 단순업무 분야에서의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공공분야에서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채용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반면, 민간기업분야서의 일자리 수요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업 채용문화의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표 2> 장애인 취업자의 일자리 산업별 비교 (2023년 5월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구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채용비율차이 (A-B)
	추정 수	비율 (A)	추정 수	비율 (B)	
전체	935,261	100	28,835,000	100	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09,337	11.7	1,663,000	5.8	5.9
제조업	125,482	13.4	4,464,000	15.5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110	0.2	83,000	0.3	(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2,661	0.3	152,000	0.5	(0.2)
건설업	65,116	7.0	2,117,000	7.3	(0.3)
도매 및 소매업	87,995	9.4	3,309,000	11.5	(2.1)
운수 및 창고업	51,483	5.5	1,651,000	5.7	(0.2)
숙박 및 음식점업	44,020	4.7	2,302,000	8.0	(3.3)

정보통신업	11,349	1.2	1,047,000	3.6	(2.4)
금융 및 보험업	15,495	1.7	777,000	2.7	(1.0)
부동산업	27,431	2.9	538,000	1.9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900	2.3	1,387,000	4.8	(2.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7,032	7.2	1,454,000	5.0	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5,454	8.1	1,287,000	4.5	3.6
교육 서비스업	24,929	2.7	1,932,000	6.7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5,343	15.5	2,916,000	10.1	5.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442	1.5	534,000	1.9	(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404	3.8	1,126,000	3.9	(0.1)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8,279	0.9	96,000	0.3	0.6

2. 국내외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

(1) 국내외 장애인 고용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기준 장애인 인구가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 한국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할당 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시에, 사업체의 고용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성격의 조치인 부담금 제도와 사업주 지원 성격의 장애인 장려금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국뿐 만 아니라 다양한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정부 주도하의 고용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용개발원 발표 EDI 장애인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정책과 해외 주요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고용의무제도를 쉽게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다. 한국에 비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해서 발전시켜 오고 있었으며 고용의무대상 장애인에 대해서도 좀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체 고용의무 적용대상 기업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 채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고용의무적용률 도입초기 대비 확대해 오고 있지만 비교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 고용의무이행률이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표 3> 고용의무제도 국가별 비교 (2023년 기준, 고용개발원 EDI 장애인고용정책 보

고서)

구분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도입연도		1990년	1974년	1957년	1976년
고용의무대상 장애인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준중증장애인	노동법에서 인정한 장애인	- 신체장애인 (1976~) - 지적장애인 (1998~) - 정신장애인 (2018~)
사업체 고용의무 적용대상		50인 이상	20인 이상	모든 기업	50인 이상
고용의무 적용률	정부	3.6%	5.0~6.0% (6.0%는 일부 연방최고기관)	6.0%	- 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5% (교육위원회)
	공공 민간	- 3.6% (공공) - 3.1% (민간)	5.0%	6.0%	- 2.3% (민간) - 2.6% (특수법인)
사업체 부담금 적용대상		100인 이상	20인 이상	20인 이상	101인 이상
사업체 부담금 부과방법		- 고용률에 따른 정액부담금 - 정부 부과	- 고용률에 따른 정액부담금 - 정부 부과	- 사업체 규모별 차등 - 정부 미부과	- 고정액 - 정부 미부과
사업주 지원제도		장려금	직업훈련, 고용유지 등 단계별 지원	채용지원, 고용유지지원, 대체계약지원	- 보장금 - 조정금 (부담금 부과대상)

3. 선행연구 고찰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의 구축사례와 조직문화의 다양성 추구의 필요성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장애인 관점에서의 다양성과 그러한 다양성이 조직문화나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유사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방향성과 분석 접근방식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 보고자 하였다.

2021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인 관련 교육성과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장애인고용비율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상임, 김보인, 2023). 이는 적절한 비율의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고용과 기업성과의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조직의 다양성 및 포용성은 임직원 만족도 개선, 우수인재 유치, 고객 유치,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기업 평판 제고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적 성과에도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보고하였다 (KCGS Report, 2021). 즉,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업마다 다양성 및 포용성 이슈는 다를 수 있기에 다양성 및 포용성 이슈는 성별, 장애여부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 장애여부와 관계없는 신체적 특성이나 질병 등 매우 넓은 범위의 이슈들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선행연구 사례를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사례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 연구에서는 Pizza Hut (피자헛)이 장애인 일자리확대 프로젝트를 통해 10년간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국적인 기업 고용 이니셔티브를 시행하여 1989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통해 1,900만 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직원보다 4~5배 높은 고용 유지율의 결과로 피자헛의 이직률을 낮춰 8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분석하였다 (Zivoich Steve & Weiner-Zivolich, Jan S., 1997). 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여 피자헛에 고용된 신규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 주정부 세금이 1,200만 달러에 달했고 기존 지역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와 재활에 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세금 지출을 4,300만 달러가량 절약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DPI Group 인터넷 사이트 기고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강력한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DPI Group, 2013). 즉, 장애인을 고용하면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직원 이직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를 다양한 글로벌 기업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Walgreens, Carolina Fine Snacks, Marriott Hotels, Washington Mutual (현재는 JP Morgan Chase Bank로 합병됨), Pizza Hut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이득을 얻었고 맞춤형 업무 역할과 편의 시설 등 직장내에서의 간단한 근무환경 조정만으로도 모든 직원의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 직원들의 낮은 이직률로 인해 장애인 고용을 통한 포용적 고용 방식을 추진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매업 부문 근무군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근속기간이 길고 결근율도 낮으며 산재 보상 청구 비율도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Brigida Hernandez, DePaul University, & Katherine McDonald, Portland State University, 2007). 반면 의료부문 근무군에서는 장애인 직원의 근속기간, 결근율, 산재 보상 평균이 비장애인 직원에 비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경우 고용주에 따르면 장애인 직원을 위한 편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고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비용이 매우 낮게 나가는 경우에 한했다고 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업무성과와 장애인 직속 관리자가 바라보는 장애인의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큰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관리자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과거 장애인과의 업무 경험 부족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장애인 채용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와 대립되는 선행 연구들도 존재하고 있다. 한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단기적인 성과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석원, 2007). 즉, 장애인 고용이 한명 증가할 때마다 이윤은 170여만 가량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외국의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주장하는 보고서가 존재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약점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생산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Baldwin & Johnson, 1994).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서들은 과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팽배한 시점에서 작성된 보고서들이라 현재 관점에서의 분석한 보고서들과 대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의 국내 기업 장애인 채용현황 데이터를 토대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해 보고 장애인 채용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통계학적 관점에서 유의성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4. 연구가설

본 연구는 장애인 채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업군과 비슷한 기업규모를 갖은 기업군중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군의 재무성과를 분석하여 그 유의성을 찾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첫째, 장애인 고용률이 양호한 기업군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열악한 기업군에 비해 재무적 성과가 높을 것이다.

둘째, 상장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 항목을 중요시하여 장애인 채용률이 더 양호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에 접근이 제한적이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 제7항 및 제29조 제3항”의 법적 조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리스트를 매년 공표하기에 가장 최근기준인 2024년 1월 3일 발표한 공표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중 민간기업 부분 428개 사업체중 장애인 고용률 1.55% 미만인면서 고용노력이 없는 기업인면서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 64개소를 발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64개 사업체 공표리스트 중 본 논문의 주된 검토 영역인 일반 기업중심의 장애인 채용효과 분석의 목적성을 고려 교육관련 사업체 (9개 기업), 의료관련 사업체 (1개 기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미등재 사업체 (3개 기업) 총 13개 사업체를 제외한 최종적으로 5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실행하였다.

한편, 51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명단”과 비교할 장애인채용 양호 대조군을 합리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51개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여 유사한 평균 매출액을 보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매출액 상위 50위 기업군을 각각 대조군으로 지정하였다. 분석결과 대조군에는 51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명단과 겹치는 기업체 3곳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대조군 리스트에서 제외시켜 비슷한 매출 규모를 보이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1.55% 이상인 집단으로 대조집단을 설계하였다.

2. 측정도구

대상 기업의 재무적 성과분석을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대상 기업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정보를 수집하여 개별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수익성, 활동성, 안정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총자산순이익률 (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등을 측정하였다. 재무성과 변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4> 재무성과 변수 정의

구분	지표	산식	설명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ROA)	당기순이익/총자산(평균)	순이익을 총자산(또는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 자산의 조달원천과 무관하게 자산 대비 이익의 비율 지표이지만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집약한 성과지표로서 종합적인 재무비율 분석지표로 활용됨.
	자기자본이익률(ROE)	당기순이익/자기자본(평균)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지표. 주주입장에서의 투자수익률. 기업의 배당능력 판단을 위한 지표로서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시 참고지표로 활용됨.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기업의 전체적인 최종마진을 나타내는 것으로 높을수록 좋음.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평균)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기업이 투자한 총자산의 활용도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적정비율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실무 기준 부채비율은 100%이하임.

3. 분석방법

기업 장애인 채용 결과와 재무성과간 비교 분석을 위해서 3가지 표본집단을 구성하였다. 첫째, 장애인 고용률이 1.55% 미만인면서 고용의무 불이행 대상 기업명단 51개 기업체 그룹, 둘째 장애인 고용률이 1.55%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기업군, 셋째 장애인 고용률이 1.55% 이상인 코스닥 상장 매출액 상위 50위 기업군으로 구성된 대조군을 만들었다. 각 대조군 별 통계학적 유의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 단일 표본 t 검증, 독립 표본 t 검증, 일원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결과 제시

1)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대상기업 표본집단 분석

고용노동부 발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대상 기업명단 중 51개 표본집단에 대해서 장애인 채용 이행상태에 따른 기업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계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1) 기술통계

51개 표본집단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평균은 1조 3,920억으로 나타났다. 재무성과지표에서는 총자산순이익률(M=4.48%), 자기자본이익률(M=11.7%), 매출액순이익률(M=4.64%), 총자산회전율(M=1.94), 부채비율(M=247%)로서 수익성 지표중에는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왜도(skewness)의 절대값이 3.0이하여야 하고,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이 8.0이하여야 한다는 기준 (문수백, 2009)를 적용하였을 때, 왜도의 절대값은 .0043~2.75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첨도의 절대값은 .21~13.6의 범위로 나타나 왜도는 정규분포 요건을 충족하나 첨도는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도에서는 자기자본이익률(9.00), 총자산회전율(13.6)이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택한 표본집단이 특정한 기업을 선별해서 분석하는 관계로 일부 재무성과지표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표

Descriptives	기업명	기업형태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률	매출액(백만원)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N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Missing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Mean			1788	55.0	15.9	0.792	1.39e+6	0.0448	0.117	0.0464	1.94	2.47
Median			1279	39	10	0.740	501398	0.0420	0.0870	0.0310	1.33	1.22
Standard deviation			1330	41.3	18.3	0.385	1.96e+6	0.0661	0.240	0.0749	2.30	3.35
Minimum			1001	31	1	0.100	48585	-0.111	-0.374	-0.111	0.0150	0.0630
Maximum			7262	225	81	1.44	8230446	0.219	1.21	0.323	13.7	15.2
Skewness			2.75	2.75	2.50	0.00429	2.18	0.0432	2.14	1.53	3.27	2.54
Std. error skewness			0.333	0.333	0.333	0.333	0.333	0.333	0.333	0.333	0.333	0.333
Kurtosis			7.39	7.38	5.82	-1.01	4.14	0.205	9.00	4.31	13.6	6.53
Std. error kurtosis			0.656	0.656	0.656	0.656	0.656	0.656	0.656	0.656	0.656	0.656

51개 표본집단의 기업형태별 구성을 보면 코스닥시장 8개 (15.7%), 유가증권시장 11개(21.6%), 기타법인 32개 (62.7%)로 구성되어 기타법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대상 공표 기업명단 중에는 비상장기업인 기타법인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표본집단의 기업형태 분류표

Frequencies of 기업형태			
기업형태	Counts	% of Total	Cumulative %
코스닥시장	8	15.7 %	15.7 %
유가증권시장	11	21.6 %	37.3 %
기타법인	32	62.7 %	100.0 %

(2) t검증

① 단일표본 t검증 (One sample t-test)

본 집단에서는 단일표본 t검증을 실행하지 않고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군과 코스닥 상장매출액 상위 50개 기업 대조군 영역에서 본집단과 상호 대조군과의 재무적 측정치들에 대한 평균값들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② 독립표본 t검증 (Independent samples t-test)

51개 표본집단에 대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차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자산순이익률 ($t=-2.570$, $p<.05$), 자기자본이익률 ($t=-2.207$, $p<.05$), 총자산회전율 ($t=-3.396$,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독립표본 t검증 결과표

Independent Samples T-Test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SE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장애인 고용률	Student's t	-0.655	49.0	0.516	-0.0734	0.1121	-0.2986 0.1518
	Welch's t	-0.654	37.8	0.517	-0.0734	0.1122	-0.3006 0.1539
총자산순이익률(ROA)	Student's t	-2.570	49.0	0.013	-0.0467	0.0182	-0.0831 -0.0102
	Welch's t	-2.770	46.4	0.008	-0.0467	0.0168	-0.0806 -0.0128
자기자본이익률(ROE)	Student's t	-2.207	49.0	0.032	-0.1475	0.0669	-0.2819 -0.0132
	Welch's t	-2.604	47.3	0.012	-0.1475	0.0566	-0.2615 -0.0336
매출액순이익률	Student's t	-0.664	49.0	0.510	-0.0145	0.0218	-0.0583 0.0293
	Welch's t	-0.656	36.4	0.516	-0.0145	0.0221	-0.0593 0.0303
총자산회전율	Student's t	-2.662 [*]	49.0	0.010	-1.6726	0.6283	-2.9353 -0.4099
	Welch's t	-3.396	35.1	0.002	-1.6726	0.4926	-2.6724 -0.6727
부채비율	Student's t	-0.175	49.0	0.862	-0.1711	0.9799	-2.1403 1.7981
	Welch's t	-0.170	34.6	0.866	-0.1711	1.0086	-2.2194 1.8772

Note. H: 비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Homogeneity of Variances Test (Levene's)

	F	df	df2	p
장애인 고용률	2.80e-4	1	49	0.987
총자산순이익률(ROA)	1.74234	1	49	0.193
자기자본이익률(ROE)	2.60093	1	49	0.113
매출액순이익률	0.58280	1	49	0.449
총자산회전율	8.52929	1	49	0.005
부채비율	0.00114	1	49	0.973

Note. A low p-value suggests a violation of the assumption of equal variances

Group Descriptives

	Group	N	Mean	Median	SD	SE
장애인 고용률	상장기업	19	0.7463	0.8200	0.3884	0.0891
	비상장기업	32	0.8197	0.7300	0.3861	0.0682
총자산순이익률(ROA)	상장기업	19	0.0155	0.0140	0.0510	0.0117
	비상장기업	32	0.0622	0.0640	0.0686	0.0121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장기업	19	0.0241	0.0470	0.1294	0.0297
	비상장기업	32	0.1716	0.1315	0.2729	0.0482
매출액순이익률	상장기업	19	0.0373	0.0260	0.0777	0.0178
	비상장기업	32	0.0517	0.0430	0.0739	0.0131
총자산회전율	상장기업	19	0.8902	0.6880	0.5417	0.1243
	비상장기업	32	2.5627	1.7360	2.6962	0.4766
부채비율	상장기업	19	2.3643	1.2160	3.6194	0.8303
	비상장기업	32	2.5354	1.1990	3.2385	0.5725

(3)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51개 표본집단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비상장기업 3가지 기업형태의 차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자산순이익률 ($F=3.297$, $p<.05$), 총자산회전율 ($F=12.471$, $p<.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urkey 사후검증 결과, 총자산순이익률은 3가지 기업형태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ames-Howell 사후검증 결과, 총자산회전율은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보다 .708 더 높고 ($p<.05$) 비상장기업보다 1.26 더 낮고 ($p<.05$), 유가증권시장은 비상장기업보다 1.97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는 규모가 작은 기업군일수록 제품 마진이 낮아 제품판매 회전율을 올리는 하는 사업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일원분산분석 결과표

One-Way ANOVA

		F	df1	df2	p
장애인 고용률	Welch's	0.461	2	15.6	0.639
	Fisher's	0.607	2	48	0.549
총자산순이익률(ROA)	Welch's	3.640	2	18.5	0.046
	Fisher's	3.297	2	48	0.046
자기자본이익률(ROE)	Welch's	3.536	2	22.8	0.046
	Fisher's	2.507	2	48	0.092
매출액순이익률	Welch's	0.355	2	16.7	0.706
	Fisher's	0.262	2	48	0.771
총자산회전율	Welch's	12.471	2	18.9	< .001
	Fisher's	3.750	2	48	0.031
부채비율	Welch's	1.365	2	21.5	0.277
	Fisher's	0.465	2	48	0.631

Group Descriptives

	기업형태 3분류	N	Mean	SD	SE
장애인 고용률	코스닥시장	8	0.65375	0.4455	0.1575
	유가증권시장	11	0.81364	0.3475	0.1048
	비상장기업	32	0.81969	0.3861	0.0682
총자산순이익률(ROA)	코스닥시장	8	0.02113	0.0489	0.0173
	유가증권시장	11	0.01145	0.0545	0.0164
	비상장기업	32	0.06219	0.0686	0.0121
자기자본이익률(ROE)	코스닥시장	8	0.05363	0.1230	0.0435
	유가증권시장	11	0.00264	0.1355	0.0408
	비상장기업	32	0.17162	0.2729	0.0482
매출액순이익률	코스닥시장	8	0.03112	0.0580	0.0205
	유가증권시장	11	0.04173	0.0920	0.0277
	비상장기업	32	0.05175	0.0739	0.0131
총자산회전율	코스닥시장	8	1.29987	0.5701	0.2016
	유가증권시장	11	0.59218	0.2621	0.0790
	비상장기업	32	2.56275	2.6962	0.4766
부채비율	코스닥시장	8	1.50050	1.1431	0.4041
	유가증권시장	11	2.99255	4.6512	1.4024
	비상장기업	32	2.53541	3.2385	0.5725

Homogeneity of Variances Test (Levene's)

	F	df1	df2	p
장애인 고용률	0.424	2	48	0.657
총자산순이익률(ROA)	0.861	2	48	0.429
자기자본이익률(ROE)	1.091	2	48	0.344
매출액순이익률	0.650	2	48	0.527
총자산회전율	4.932	2	48	0.011
부채비율	2.387	2	48	0.103

Tukey Post-Hoc Test – 총자산순이익률(ROA)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	비상장기업
코스닥시장	Mean difference	—	0.00967	-0.0411
	p-value	—	0.942	0.238
유가증권시장	Mean difference		—	-0.0507
	p-value		—	0.066
비상장기업	Mean difference			—
	p-value			—

Note. * $p < .05$, ** $p < .01$, *** $p < .001$

Games-Howell Post-Hoc Test – 총자산회전율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	비상장기업
코스닥시장	Mean difference	—	0.708 *	-1.26 *
	p-value	—	0.023	0.050
유가증권시장	Mean difference		—	-1.97 ***
	p-value		—	< .001
비상장기업	Mean difference			—
	p-value			—

Note. * $p < .05$, ** $p < .01$, *** $p < .001$

(4)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51개 표본집단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률, 매출액,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근로자수의 상관계수가 $r=.614$ ($p<.001$), 매출액과 장애인 근로자수의 상관계수가 $r=.593$ ($p<.001$), 자기자본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731$ ($p<.001$),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414$ ($p<.01$), 총자산회전율과 장애인고용률의 상관계수가 $r=.356$ ($p<.01$), 총자산회전율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406$ ($p<.01$), 총자산회전율과 자기자본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348$ ($p<.05$)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중 자기자본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과 같은 가장 다양한 재무성과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상관분석 결과표

Correlation Matrix

		장애인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률	매출액(백만원)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장애인 근로자수	Pearson's r	—							
	df	—							
	p-value	—							
장애인 고용률	Pearson's r	0.614***	—						
	df	49	—						
	p-value	< .001	—						
매출액(백만원)	Pearson's r	0.593***	0.165	—					
	df	49	49	—					
	p-value	< .001	0.246	—					
총자산순이익률(ROA)	Pearson's r	-0.038	0.015	-0.192	—				
	df	49	49	49	—				
	p-value	0.790	0.917	0.177	—				
자기자본이익률(ROE)	Pearson's r	-0.109	-0.110	-0.214	0.731***	—			
	df	49	49	49	49	—			
	p-value	0.446	0.443	0.131	< .001	—			
매출액순이익률	Pearson's r	-0.044	-0.145	-0.050	0.414**	0.222	—		
	df	49	49	49	49	49	—		
	p-value	0.761	0.309	0.726	0.003	0.118	—		
총자산회전율	Pearson's r	0.013	0.356*	-0.179	0.406**	0.348*	-0.206	—	
	df	49	49	49	49	49	49	—	
	p-value	0.930	0.010	0.208	0.003	0.012	0.146	—	
부채비율	Pearson's r	0.199	-0.071	0.264	-0.242	0.016	0.154	-0.101	—
	df	49	49	49	49	49	49	49	—
	p-value	0.162	0.623	0.061	0.087	0.912	0.280	0.482	—

Note. * p < .05, ** p < .01, *** p < .001

(5)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51개 표본집단에 대해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이 장애인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량은 19.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총자산회전율만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p < .05$).

<표 10> 회귀분석 결과표

Model Fit Measures

Model	R	R ²	Adjusted R ²	Overall Model Test			
				F	df1	df2	p
1	0.437	0.191	0.101	2.13	5	45	0.079

Model Coefficients - 장애인 고용률

Predictor	Estimate	SE	t	p	Stand. Estimate
Intercept	0.6962	0.0889	7.8349	< .001	
총자산순이익률(ROA)	0.4219	1.5441	0.2732	0.786	0.07249
자기자본이익률(ROE)	-0.4961	0.3394	-1.4617	0.151	-0.30899
매출액순이익률	-0.0899	0.9175	-0.0980	0.922	-0.01749
총자산회전율	0.0721	0.0278	2.5913	0.013	0.43081
부채비율	-2.25e-4	0.0179	-0.0126	0.990	-0.00196

Collinearity Statistics

	VIF	Tolerance
총자산순이익률(ROA)	3.92	0.255
자기자본이익률(ROE)	2.49	0.402
매출액순이익률	1.77	0.564
총자산회전율	1.54	0.650
부채비율	1.35	0.742

2)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기업 대조군 분석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대상 기업명단 51개 표본집단과 비교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기업군과 기업재무성과에 대해 통계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1) 기술통계

첫번째 대조 집단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평균은 1조 6,225억으로 나타났다으며 재무성과지표에서는 총자산순이익률(M=5.57%), 자기자본이익률(M=10.5%), 매출액순이익률(M=9.71%), 총자산회전율(M=9.70), 부채비율(M=190%)로서 수익성 지표중에는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왜도(skewness)의 절대값이 3.0이하여야 하고,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이 8.0이하여야 한다는 기준 (문수백, 2009)를 적용하였을 때, 왜도의 절대값은 .45~5.07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첨도의 절대값은 .80~29.9의 범위로 나타나 왜도 첨도 모두 정규분포 요건을 충족하지 나타났다. 이는 선택한 대조집단이 표본집단과 유사한 집단을 선별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으로 선별해서 분석하는 관계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표

Descriptives	기업형태	장애인 고용규모	매출액(백만원)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N	50	50	50	50	50	50	50	50
Missing	0	0	0	0	0	0	0	0
Mean			1.62e+6	0.0557	0.105	0.0971	0.970	1.90
Median			1.59e+6	0.0415	0.0730	0.0555	0.930	0.864
Standard deviation			285459	0.0679	0.163	0.116	0.702	3.99
Minimum			1238493	-0.0840	-0.280	-0.0880	0.0200	0.0870
Maximum			2199525	0.290	0.936	0.550	4.08	26.4
Skewness			0.454	1.48	2.78	1.86	1.70	5.07
Std. error skewness			0.337	0.337	0.337	0.337	0.337	0.337
Kurtosis			-0.799	3.58	14.0	4.32	6.58	29.9
Std. error kurtosis			0.662	0.662	0.662	0.662	0.662	0.662

(2) t검증

① 단일표본 t검증 (One sample t-test)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과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군과 재무적 측정치들에 대한 평균값들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총자산순이익률 (ROA)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군의 총자산순이익률 평균(5.57%)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의 총자산순이익률 평균 (4.48%)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13$, $p=.263$)

<표 12> 단일표본 t검증 분석 결과표 - 총자산순이익률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총자산순이익률(ROA)	Student's t	1.13	49.0	0.263	0.0109	-0.00843	0.0301

Note. $H_0: \mu \neq 0.0448$

	N	Mean	Median	SD	SE
총자산순이익률(ROA)	50	0.0557	0.0415	0.0679	0.00960

자기자본이익률 (ROE)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군의 자기자본이익률 평균(10.5%)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의 자기자본이익률 평균 (11.7%)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531$, $p=.598$)

<표 13> 단일표본 t검증 분석 결과표 - 자기자본이익률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자기자본이익률(ROE)	Student's t	-0.531	49.0	0.598	-0.0123	-0.0586	0.0341

Note. $H_0: \mu \neq 0.117$

	N	Mean	Median	SD	SE
자기자본이익률(ROE)	50	0.105	0.0730	0.163	0.0231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군의 매출액순이익률

평균(9.71%)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의 매출액순이익률 평균 (4.64%)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08$, $p<.01$)

<표 14> 단일표본 t검증 분석 결과표 - 매출액순이익률

One Sample T-Test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매출액순이익률	Student's t	3.08	49.0	0.003	0.0507	0.0177	0.0837
Note. $H_0: \mu \neq 0.0464$							
Descriptives							
	N	Mean	Median	SD	SE		
매출액순이익률	50	0.0971	0.0555	0.116	0.0164		

총자산회전율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군의 총자산회전율 평균(.970)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의 총자산회전율 평균 (1.94)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9.77$, $p<.001$)

<표 15> 단일표본 t검증 분석 결과표 - 총자산회전율

One Sample T-Test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총자산회전율	Student's t	-9.77	49.0	< .001	-0.970	-1.17	-0.771
Note. $H_0: \mu \neq 1.94$							
Descriptives							
	N	Mean	Median	SD	SE		
총자산회전율	50	0.970	0.930	0.702	0.0993		

부채비율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군의 부채비율 평균(190%)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의 부채비율 평균 (247%)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00$, $p=.322$)

<표 16> 단일표본 t검증 분석 결과표 - 부채비율

One Sample T-Test

						95% Confidence Interval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Lower	Upper
부채비율	Student's t	-1.00	49.0	0.322	-0.565	-1.70	0.570

Note. $H_0: \mu \neq 2.47$

Descriptives

	N	Mean	Median	SD	SE
부채비율	50	1.90	0.864	3.99	0.565

② 독립표본 t검증 (Independent samples t-test)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군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간의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매출액순이익률 ($t=-2.602, p<.05$), 총자산회전율 ($t=2.88,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독립표본 t검증 결과표

Independent Samples T-Test

							95% Confidence Interval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SE difference	Lower	Upper
총자산순이익률(ROA)	Student's t	-0.814	99.0	0.417	-0.0109	0.0133	-0.0373	0.0156
	Welch's t	-0.814	98.8	0.418	-0.0109	0.0133	-0.0373	0.0156
자기자본이익률(ROE)	Student's t	0.292	99.0	0.771	0.0119	0.0409	-0.0692	0.0930
	Welch's t	0.293	88.3	0.770	0.0119	0.0407	-0.0690	0.0928
매출액순이익률	Student's t	-2.613 [*]	99.0	0.010	-0.0507	0.0194	-0.0892	-0.0122
	Welch's t	-2.602	83.5	0.011	-0.0507	0.0195	-0.0895	-0.0120
총자산회전율	Student's t	2.856 [*]	99.0	0.005	0.9697	0.3395	0.2960	1.6433
	Welch's t	2.880	59.4	0.006	0.9697	0.3367	0.2960	1.6433
부채비율	Student's t	0.774	99.0	0.441	0.5671	0.7331	-0.8875	2.0217
	Welch's t	0.772	95.4	0.442	0.5671	0.7343	-0.8907	2.0249

Note. $H_0: \mu_{\text{불이행기업}} \neq \mu_{\text{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 Levene's test is significant ($p < .05$), suggesting a violation of the assumption of equal variances

Homogeneity of Variances Test (Levene's)

	F	df	df2	p
총자산순이익률(ROA)	0.1535	1	99	0.696
자기자본이익률(ROE)	2.6545	1	99	0.106
매출액순이익률	4.8715	1	99	0.030
총자산회전율	10.6378	1	99	0.002
부채비율	0.0758	1	99	0.784

Note. A low p-value suggests a violation of the assumption of equal variances

Group Descriptives

	Group	N	Mean	Median	SD	SE
총자산순이익률(ROA)	불이행기업	51	0.0448	0.0420	0.0661	0.00926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50	0.0557	0.0415	0.0679	0.00960
자기자본이익률(ROE)	불이행기업	51	0.1167	0.0870	0.2396	0.03355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50	0.1047	0.0730	0.1632	0.02307
매출액순이익률	불이행기업	51	0.0464	0.0310	0.0749	0.01048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50	0.0971	0.0555	0.1161	0.01643
총자산회전율	불이행기업	51	1.9396	1.3270	2.2977	0.32175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50	0.9700	0.9305	0.7018	0.09926
부채비율	불이행기업	51	2.4717	1.2160	3.3504	0.46915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50	1.9046	0.8640	3.9948	0.56495

(3)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집단에 대해 매출액,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자본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722$ ($p<.001$),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392$ ($p<.001$), 매출액순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211$ ($p<.05$), 총자산회전율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270$ ($p<.01$), 총자산회전율과 자기자본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296$ ($p<.01$), 총자산회전율과 매출액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279$ ($p<.01$), 부채비율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231$ ($p<.05$)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중 자기자본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대상 표본집단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즉,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상태와 무관하게 자기자본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8> 상관분석 결과표

Correlation Matrix

		매출액(백만원)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매출액(백만원)	Pearson's r	—					
	df	—					
	p-value	—					
총자산순이익률(ROA)	Pearson's r	-0.128	—				
	df	99	—				
	p-value	0.203	—				
자기자본이익률(ROE)	Pearson's r	-0.189	0.722***	—			
	df	99	99	—			
	p-value	0.059	<.001	—			
매출액순이익률	Pearson's r	-0.025	0.392***	0.211*	—		
	df	99	99	99	—		
	p-value	0.808	<.001	0.034	—		
총자산회전율	Pearson's r	-0.173	0.270**	0.296**	-0.279**	—	
	df	99	99	99	99	—	
	p-value	0.084	0.006	0.003	0.005	—	
부채비율	Pearson's r	0.156	-0.231*	0.015	0.063	-0.103	—
	df	99	99	99	99	99	—
	p-value	0.119	0.020	0.880	0.531	0.304	—

Note. * $p < .05$, ** $p < .01$, *** $p < .001$

3) 코스닥상장 매출액 상위 50개 기업군 분석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대상 기업명단 51개 표본집단과 추가적인 비교를 위해, 코스닥 상장 매출액 상위 50위 기업군과 기업재무성과에 대해 통계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1) 기술통계

두번째 대조 집단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평균은 1조 12억으로 나타났다. 재무성과지표에서는 총자산순이익률(M=3.61%), 자기자본이익률(M=2.0%), 매출액순이익률(M=3.25%), 총자산회전율(M=1.22), 부채비율(M=135%)로서 수익성 지표중에는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대상 표본집단과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군에서 자기자본이익률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왜도(skewness)의 절대값이 3.0이하여야 하고,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이 8.0이하여야 한다는 기준 (문수백, 2009)를 적용하였을 때, 왜도의 절대값은 .944-5.76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첨도의 절대값은 .43-36.9의 범위로 나타나 왜도, 첨도 모두 정규분포 요건을 충족하지 나타났다. 이는 선택한 대조집단이 표본집단과 유사한 집단을 선별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으로 선별해서 분석하는 관계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9>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표

Descriptives	기업형태	장애인 고용규모	매출액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N	49	49	49	49	49	49	49	49
Missing	0	0	0	0	0	0	0	0
Mean			1.00e+6	0.0361	0.0200	0.0325	1.22	1.35
Median			753347	0.0450	0.0870	0.0360	0.998	0.802
Standard deviation			595367	0.0759	0.354	0.128	0.661	2.13
Minimum			516153	-0.281	-2.25	-0.670	0.343	0.0890
Maximum			3145637	0.192	0.290	0.365	2.99	14.8
Skewness			2.02	-1.58	-5.76	-3.20	0.944	5.50
Std. error skewness			0.340	0.340	0.340	0.340	0.340	0.340
Kurtosis			3.95	5.87	36.9	19.4	0.426	34.2
Std. error kurtosis			0.668	0.668	0.668	0.668	0.668	0.668

(2) t검증

① 단일표본 t검증 (One sample t-test)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과 코스닥상장 매출액 상위 50위 대조군과 재무적 측정치들에 대한 평균값들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총자산순이익률 (ROA)의 경우, 코스닥 상장 매출액 상위 50위 대조군의 총자산순이익률 평균(3.61%)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의 총자산순이익률 평균 (4.48%)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799$, $p=.428$)

<표 20> 단일표본 t검증 분석 결과표 - 총자산순이익률

One Sample T-Test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총자산순이익률(ROA)	Student's t	-0.799	48.0	0.428	-0.00866	-0.0304 0.0131

Note. $H_0: \mu \neq 0.0448$

Descriptives					
	N	Mean	Median	SD	SE
총자산순이익률(ROA)	49	0.0361	0.0450	0.0759	0.0108

자기자본이익률 (ROE)의 경우, 코스닥 상장 매출액 상위 50위 대조군의 자기자본이익률 평균(8.70%)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의 자기자본이익률 평균 (11.7%)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92$, $p=.061$)

<표 21> 단일표본 t검증 분석 결과표 - 자기자본이익률

One Sample T-Test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자기자본이익률(ROE)	Student's t	-1.92	48.0	0.061	-0.0970	-0.199 0.00456

Note. $H_0: \mu \neq 0.117$

Descriptives					
	N	Mean	Median	SD	SE
자기자본이익률(ROE)	49	0.0200	0.0870	0.354	0.0505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 코스닥 상장 매출액 상위 50위 대조군의 매출액순이익률 평균 (3.25%)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의 매출액순이익률 평균 (4.64%)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758$, $p=.452$)

<표 22> 단일표본 t검증 분석 결과표 - 매출액순이익률

One Sample T-Test

					95% Confidence Interval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Lower	Upper
매출액순이익률	Student's t	-0.758	48.0	0.452	-0.0139	-0.0507	0.0229

Note. $H_0: \mu \neq 0.0464$

Descriptives

	N	Mean	Median	SD	SE
매출액순이익률	49	0.0325	0.0360	0.128	0.0183

총자산회전율의 경우, 코스닥 상장 매출액 상위 50위 대조군의 총자산회전율 평균 (1.22)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의 총자산회전율 평균 (1.94)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7.68$, $p<.001$)

<표 23> 단일표본 t검증 분석 결과표 - 총자산회전율

One Sample T-Test

						95% Confidence Interval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Lower	Upper
총자산회전율	Student's t	-7.68	48.0	< .001	-0.724	-0.914	-0.535

Note. $H_0: \mu \neq 1.94$

Descriptives

	N	Mean	Median	SD	SE
총자산회전율	49	1.22	0.998	0.661	0.0944

부채비율의 경우, 코스닥 상장 매출액 상위 50위 대조군의 부채비율 평균(135%)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의 부채비율 평균 (247%)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68$, $p<.001$)

<표 24> 단일표본 t검증 분석 결과표 - 부채비율

One Sample T-Test

						95% Confidence Interval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Lower	Upper
부채비율	Student's t	-3.68	48.0	< .001	-1.12	-1.73	-0.507

Note. $H_0: \mu \neq 2.47$

Descriptives

	N	Mean	Median	SD	SE
부채비율	49	1.35	0.802	2.13	0.304

② 독립표본 t검증 (Independent samples t-test)

코스닥 상장 매출액 상위 50위 대조군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표본집단간의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자산회전율 ($t=2.159$, $p<.05$), 부채비율 ($t=2.005$,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군과 비교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과 대조를 보인다.

<표 25> 독립표본 t검증 결과표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SE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총자산순이익률(ROA)	Student's t	0.609	98.0	0.544	0.00866	0.0142	-0.01954	0.0369
	Welch's t	0.608	95.0	0.545	0.00866	0.0143	-0.01963	0.0370
자기자본이익률(ROE)	Student's t	1.606	98.0	0.111	0.09669	0.0602	-0.02277	0.2161
	Welch's t	1.594	84.0	0.115	0.09669	0.0606	-0.02392	0.2173
매출액순이익률	Student's t	0.662	98.0	0.509	0.01384	0.0209	-0.02762	0.0553
	Welch's t	0.656	76.7	0.514	0.01384	0.0211	-0.02818	0.0559
총자산회전율	Student's t	2.123 [*]	98.0	0.036	0.72404	0.3411	0.04715	1.4009
	Welch's t	2.159	58.5	0.035	0.72404	0.3353	0.05298	1.3951
부채비율	Student's t	1.987 [*]	98.0	0.050	1.12087	0.5640	0.00165	2.2401
	Welch's t	2.005	85.2	0.048	1.12087	0.5592	0.00912	2.2326

Note. H₀: $\mu_{\text{불이행기업}} = \mu_{\text{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 Levene's test is significant ($p < .05$), suggesting a violation of the assumption of equal variances

	F	df	df2	p
총자산순이익률(ROA)	0.02083	1	98	0.886
자기자본이익률(ROE)	0.00139	1	98	0.970
매출액순이익률	0.93502	1	98	0.336
총자산회전율	9.51512	1	98	0.003
부채비율	7.07173	1	98	0.009

Note. A low p-value suggests a violation of the assumption of equal variances

Group		N	Mean	Median	SD	SE
총자산순이익률(ROA)	불이행기업	51	0.0448	0.0420	0.0661	0.00926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49	0.0361	0.0450	0.0759	0.0108
자기자본이익률(ROE)	불이행기업	51	0.1167	0.0870	0.2396	0.03355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49	0.0200	0.0870	0.3537	0.0505
매출액순이익률	불이행기업	51	0.0464	0.0310	0.0749	0.01048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49	0.0325	0.0360	0.1282	0.0183
총자산회전율	불이행기업	51	1.9396	1.3270	2.2977	0.32175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49	1.2156	0.9980	0.6606	0.0944
부채비율	불이행기업	51	2.4717	1.2160	3.3504	0.46915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49	1.3508	0.8020	2.1298	0.3043

(3)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3 집단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대상 표본집단,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집단, 코스닥 상장 매출액 상위 50위 대조집단) 의 차이에 따른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매출액순이익률 ($F=4.883, p<.01$), 총자산회전율 ($F=4.838, p<.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urkey 사후검증 결과, 매출액순이익률은 상장기업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집단이 코스닥 상장 매출액 상위 50위 대조집단보다 .0645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p<.01$).

Games-Howell 사후검증 결과, 총자산회전율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대상 표본집단이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집단보다 .97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표 26> 일원분산분석 결과표

One-Way ANOVA					
		F	df1	df2	p
총자산순이익률(ROA)	Welch's	0.921	2	97.4	0.401
	Fisher's	0.967	2	147	0.383
자기자본이익률(ROE)	Welch's	1.379	2	89.9	0.257
	Fisher's	1.990	2	147	0.140
매출액순이익률	Welch's	4.338	2	91.2	0.016
	Fisher's	4.883	2	147	0.009
총자산회전율	Welch's	4.838	2	90.3	0.010
	Fisher's	6.113	2	147	0.003
부채비율	Welch's	2.058	2	91.8	0.134
	Fisher's	1.479	2	147	0.231

Group Descriptives					
	장애인 고용규모	N	Mean	SD	SE
총자산순이익률(ROA)	불이행기업	51	0.0448	0.0661	0.00926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50	0.0557	0.0679	0.00960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49	0.0361	0.0759	0.01084
자기자본이익률(ROE)	불이행기업	51	0.1167	0.2396	0.03355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50	0.1047	0.1632	0.02307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49	0.0200	0.3537	0.05052
매출액순이익률	불이행기업	51	0.0464	0.0749	0.01048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50	0.0971	0.1161	0.01643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49	0.0325	0.1282	0.01832
총자산회전율	불이행기업	51	1.9396	2.2977	0.32175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50	0.9700	0.7018	0.09926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49	1.2156	0.6606	0.09437
부채비율	불이행기업	51	2.4717	3.3504	0.46915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50	1.9046	3.9948	0.56495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49	1.3508	2.1298	0.30426

Homogeneity of Variances Test (Levene's)

	F	df1	df2	p
총자산순이익률(ROA)	0.136	2	147	0.873
자기자본이익률(ROE)	0.956	2	147	0.387
매출액순이익률	1.670	2	147	0.192
총자산회전율	9.604	2	147	< .001
부채비율	2.834	2	147	0.062

Tukey Post-Hoc Test - 매출액순이익률

		불이행기업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불이행기업	Mean difference	—	-0.0507	0.0138
	p-value	—	0.052	0.800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Mean difference	—	—	0.0645**
	p-value	—	—	0.010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Mean difference	—	—	—
	p-value	—	—	—

Note. * p < .05, ** p < .01, *** p < .001

Games-Howell Post-Hoc Test - 총자산회전율

		불이행기업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불이행기업	Mean difference	—	0.970*	0.724
	p-value	—	0.015	0.087
상장기업 매출액상위101~150	Mean difference	—	—	-0.246
	p-value	—	—	0.177
코스닥기업 매출액상위 50	Mean difference	—	—	—
	p-value	—	—	—

Note. * p < .05, ** p < .01, *** p < .001

(4)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코스닥 상장 매출액 상위 50위 대조집단에 대해 매출액,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자본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668$ ($p<.001$),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731$ ($p<.001$), 매출액순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406$ ($p<.001$), 총자산회전율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273$ ($p<.01$), 총자산회전율과 자기자본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229$ ($p<.05$), 부채비율과 매출액 상관계수가 $r=.242$ ($p<.05$), 부채비율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r=-.280$ ($p<.01$),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 상관계수가 $r=-.327$ ($p<.001$)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중 매출액 순확인했다과 총자산순이익률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대상이나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기업집단에서 나타난 가장 높은 항목이랑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27> 상관분석 결과표

Correlation Matrix

		매출액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매출액	Pearson's r	—					
	df	—					
	p-value	—					
총자산순이익률(ROA)	Pearson's r	-0.127	—				
	df	98	—				
	p-value	0.210	—				
자기자본이익률(ROE)	Pearson's r	-0.074	0.668 ***	—			
	df	98	98	—			
	p-value	0.466	< .001	—			
매출액순이익률	Pearson's r	-0.025	0.731 ***	0.406 ***	—		
	df	98	98	98	—		
	p-value	0.803	< .001	< .001	—		
총자산회전율	Pearson's r	-0.115	0.273 **	0.229 *	-0.095	—	
	df	98	98	98	98	—	
	p-value	0.254	0.006	0.022	0.349	—	
부채비율	Pearson's r	0.242 *	-0.280 **	-0.327 ***	-0.020	-0.025	—
	df	98	98	98	98	98	—
	p-value	0.015	0.005	< .001	0.841	0.807	—

Note. * p < .05, ** p < .01, *** p < .001

2. 설정된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설인 "장애인 고용률이 양호한 기업군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열악한 기업군에 비해 재무적 성과가 높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군과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매출액순이익률($t=-2.602$, $p<.05$)과 총자산회전율($t=2.88$,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장애인 고용률이 양호한 기업군이 일부 재무적 성과 지표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재무적 성과 지표에서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이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인 "상장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 항목을 중요시하여 장애인 채용률이 더 양호할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51개 표본집단의 기업형태별 구성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대상 기업 중 비상장 기업의 비중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상장 여부가 장애인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장 기업이 반드시 더 높은 장애인 채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상관분석 결과에서 총자산회전율과 장애인 고용률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356$, $p<.01$)가 발견되었으며, 회귀분석에서도 총자산회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장애인 고용률과 기업의 일부

재무적 성과 지표 간에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장 여부와 장애인 고용률 간의 관계는 예상과 달리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고용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가 복잡적이며, 단순히 상장 여부나 기업 규모 등의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채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군과 낮은 기업군 간의 재무성과 차이는 일부 지표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유가증권시장 매출액 상위 101-150 대조군과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매출액순이익률($t=-2.602, p<.05$)과 총자산회전율($t=2.88,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수익성과 자산 활용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간의 장애인 고용률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51개 표본집단의 기업형태별 구성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대상 기업 중 비상장 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상장 여부가 장애인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장애인 고용률과 기업의 재무성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총자산회전율과 장애인 고용률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356, p<.01$)가 발견되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자산 활용 효율성 향상과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회귀분석 결과, 총자산회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기업의 자산 활용 효율성이 높을수록 장애인 고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극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 채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데이터의 제한성이다. 본 연구는 공개된 장애인 고용 정보에 기반하여 분석을 수행했으나, 많은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정보가 비공개이거나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인과관계 규명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주로 상관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과 기업 재무성과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나 실험 설계를 통해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각 산업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환경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질적 요인의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주로 양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했으나, 기업 문화, 경영진의 인식 등 질적 요인도 장애인 고용과 기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더욱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보 공개 범위의 한계로 인한 장애인 고용률과 기업가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제약이 있었다. 장애인 고용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보 의무 공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공개 정보가 많아질수록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장애인 채용 시 객관적인 효과를 규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채용이 확대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

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가 더욱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계의 연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고용노동부(2024),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기관·기업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35호.

김상임, 김보인(2023), "장애인 고용 기업체에서의 장애인 관련 교육성과가 해당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철중 (2022), “재무제표를 읽는 사례연구 핵심기업분석”, 제 2판, 지식경영사.

KCGS Report (2021),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성효용, 김난주 (2019), “여성임원의 경제활동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 15권 4호 p. 175-188.

이석원 (2007), “장애인의 생산성과 의무고용제도”,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3),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조사통계 2023-06호.

<외국문헌>

Baldwin, M. L., Johnson, W. G.(1994),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1), 1-19.

DPI Group(2013), "Hire Workers With Disabilities to Improve Your Bottom Line," <https://thedpigroup.com/2013/02/27/hire-workers-with-disabilities-to-improve-bottom-line>.

Hernandez, B., McDonald, K.(2007), "Exploring the bottom line: A study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DePaul University and Portland State University*.

Zivolich, S., Weiner-Zivolich, J. S.(1997), "A national corporate employment initiativ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a 10-year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8(1), 75-87.

<참고사이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e-나라지표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https://www.index.go.kr>)

Company Guide 홈페이지 (<https://comp.fnguide.com>)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연구 과정 중 분석 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세심하고 명료한 지도로 이끌어주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의 박정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풍부한 지식과 명확한 조언은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알토대학교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복수학위 코스인 Executive MBA 과정의 필수 과목 'Statistics & Decision Models' 수업을 통해 통계 분석 및 의사결정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이는 본 연구에서 통계적 관점의 정량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 선정에 큰 영감을 준 당행 서울지점의 DAP(Different Abled Persons) 직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업무 자세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본 연구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지지는 본 연구를 더욱 의미 있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끝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준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격려가 있었기에 이 긴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DAP의 고용 증진과 기업의 인식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이종민 올림